

BILZARD
ENTERTAINMENT

#1

STARCRRAFT®

LEGACY OF THE VOID™

아르타니스

희생

맷 번즈

제임스 와우

에두아르 귀통

엠마뉴엘 텐더리니

클렘 로빈스



아르타니스

희생

글
맷 번즈, 제임스 와우

그림
에두아르 귀통

채색
엠마뉴엘 텐더리니

식자
클렘 로빈스

미술 디렉터
로건 루베라

편집
로버트 심슨, 케이트 게리

표지
에두아르 귀통, 엠마뉴엘 텐더리니

그래픽 디자이너
마르코 사이프리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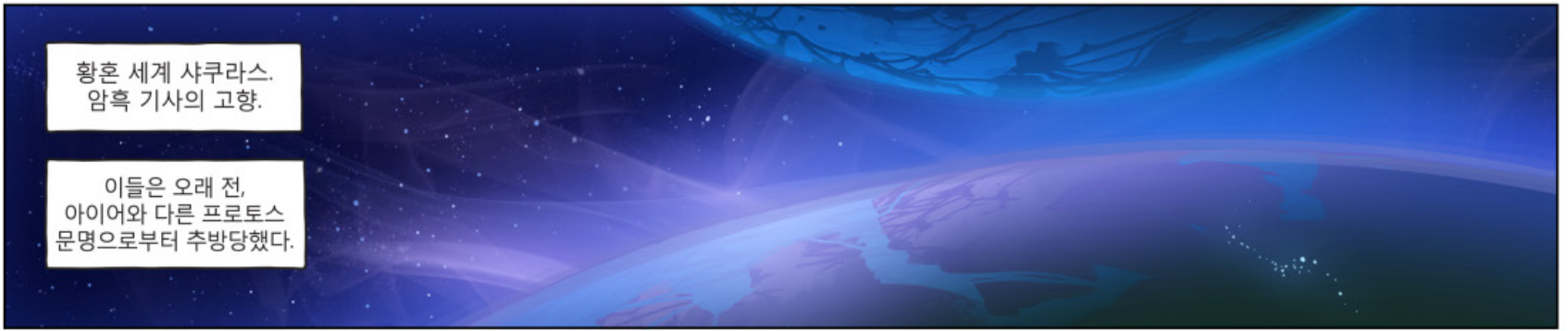
크리에이티브 자문
크리스 멧젠, 앨런 딜링, 저스틴 다이, 발레리 워트러스

이야기 자문
저스틴 파커, 션 코프랜드

프로듀서
마이클 바이비, 레이첼 드 종

이야기 및 크리에이티브 개발 디렉터
제임스 와우





황혼 세계 샤쿠라스.
암흑 기사들의 고향.

이들은 오래 전,
아이어와 다른 프로토스
문명으로부터 추방당했다.



하지만 저그와의 전쟁은
나뉘었던 프로토스 진영을
다시 하나로 합쳤다.

지금 이 새로운 사회,
델람은 조화와 통합을
이루려 발버둥친다.

성공은 프로토스의 지도부
신관회에 달려 있지만, 이들은 지금
불가능한 일을 맞닥뜨리고 있다.

함대를 정비해야 하는데,
그대들 네라짐*은 아직도
자원을 비축하고만 있군.

*네라짐: 한때 추방되었던 프로토스.
암흑 기사단이라고도 한다.



우리도 저그의
공격을 받고 있다. 타브레누스.
각 부족이 자기 일은 알아서
하자고 했던 건 아이어
프로토스 아니었나? 지금은
스스로 생존해야 할 때다.

하! 칼라를 저버렸으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안다는 거지?

그 잘난 칼라가
있었을 때도 그대들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다.
우리에게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또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군요. 내일 논의를
재개하면 어떨까요?

모한다르

보라준

아르타니스

우룬

나한

타브레누스

셀렌디스

제크라스



잠깐. 우리 모두
하나의 동족이다.
그렇지 않나?

그런데도 지금 우리 그저
각자의 이기심만을 위해 싸우면서,
아무것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젠 행동해야 한다.



이 신관회는
무너지고 있다.
이 모임이 존속되려면 지도자가
필요해. 이런 난국도
그 증거일 뿐이야.

그러면 제가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다간
모든 일을 망치고
말 거다. 나한. 내가
그 자리에 지원하지.



어이가 없군. 우리 그대들
칼라이를 우리 세계로 받아들였다.
그 결과가 다시 이런 싸움뿐이라니.
그 자리에는 네라짐 신관이
더 어울린다.

진정하라.
지도자는
네라짐과 칼라이
양쪽의 존경을
받을 인물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아르타니스
같은.

아르타니스가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몸들 바를 모르겠군. 하지만 내가 신관회에 참석하는 건 일시적인 일일 뿐. 다음 순환이 끝나면 물러나려 한다.

정치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저도 그대 뒤를 따르고 싶습니다. 그대는 위기의 순간 우릴 이 세계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기사단의 군사 지도자로서 그랬을 뿐이다. 전사로서.

그럼에도 그대는 프로토스에게 있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었지요.



그래, 우리 모두 아르타니스가 신관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기사단에 생을 바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대는 어떻습니까, 모한다르?

아르타니스만이 양 진영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이는 없어.



이제 휴정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안이 없고, 상황은 극도로 위태롭습니다.

아르타니스, 내일까지 재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거부한다면, 난 이 연합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

나도 마찬가지.

그대들이 떠난다고 내가 슬퍼할 것 같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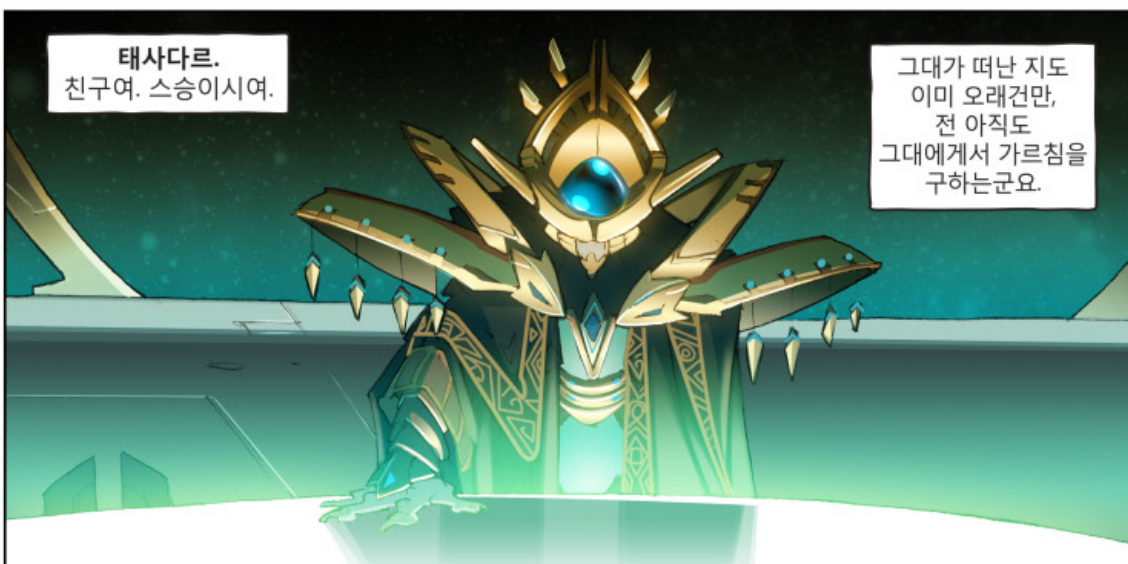
함께 행동할 수 없다면 달람이 무슨 소용이지?

재개할 때까지 칼라와 교감하여 주십시오. 신관회에 지도자가 선출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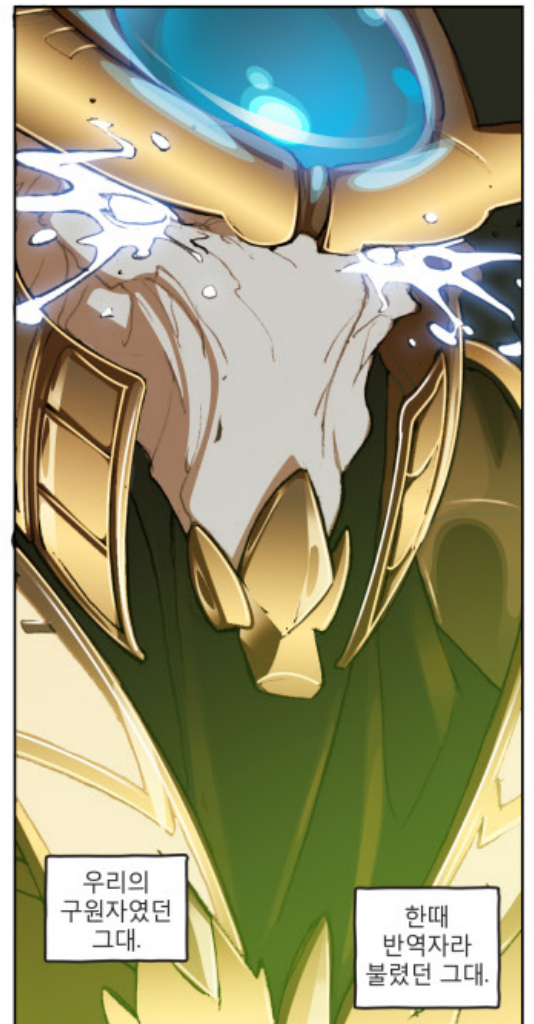
모한다르, 이건 내가 원하는 운명이 아니다.

원하는 바는 필요한 것과 상충하는 일이 많습니다. 태사다르께서도 그걸 아셨지요.



태사다르. 친구여. 스승이시여.

그대가 떠난 지도 이미 오래건만, 전 아직도 그대에게서 가르침을 구하는군요.



우리의 구원자였던 그대.

한때 반역자라 불렸던 그대.



그때는 제가 어찌나 어리석었던지. 저그가 아이어를 침공하는 순간에도, 전 대의회의 광기에 따라 그대를 쫓았습니다.

그가 이런 짓을 했더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차 행성 궤도에 올랐군. 관측선이 태사다르를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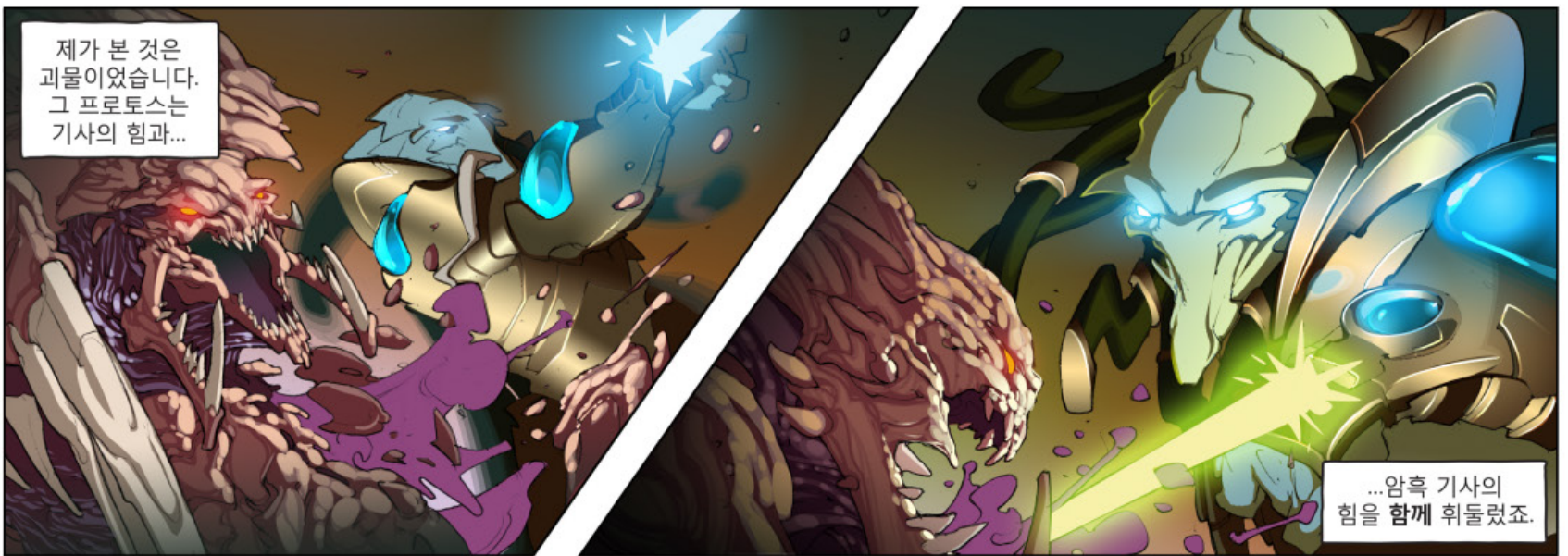


놈에 대한 존경심이 그대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

그는 암흑 기사와 공모하고, 심지어 그들의 길을 익히고 있다. 이건 이단이다!

전 그를 압니다. 우릴 배신할 리가 없습니다.

그대가 알던 태사다르는 사라졌다. 칼라에서 그의 배신이 느껴진다. 직접 보라...



제가 본 것은 괴물이었습니다. 그 프로토스는 기사의 힘과...

...암흑 기사의 힘을 함께 휘둘렀죠.



하지만 그대에게서 악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새로웠을 뿐.

날 이단자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행한 일은 모두 우리 동족을 위한 것이었다.

우린 우리가 추방했던 이들과 화해하고 그들에게서 공허의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이어에서 저그를 제거하려면, 오랜 믿음을 거부하고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벽찰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문해 보라. 우리 종족을 구하기 위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인가?



"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아이어로 항로를 맞춰라. 태사다르와 그의 동맹은 우리와 함께 저그와 싸울 것이다.

경고하겠다, 집행관. 이런 불손한 일을 저지른다면 대의회는 그대를 파면시킬 거다!

우리 문명 전체의 미래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들도 이해할 겁니다. 저처럼.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그가 아이어를 더럽히고, 우리 도시를 불태우고, 우리 백성들을 학살하는 그 순간에도, 대의회는 온 힘을 쏟아 우릴 공격했습니다.

전 절망에 굴복했지만, 그대는 굳건했습니다.



내전으로 고통 받으면서 저그를 물리칠 순 없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

내가 투항하여 이 유혈 사태를 종식시키고, 우리 동족이 다시 싸울 수 있게 하겠다.



안 됩니다. 다시 뭉쳐서 다른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희생은 무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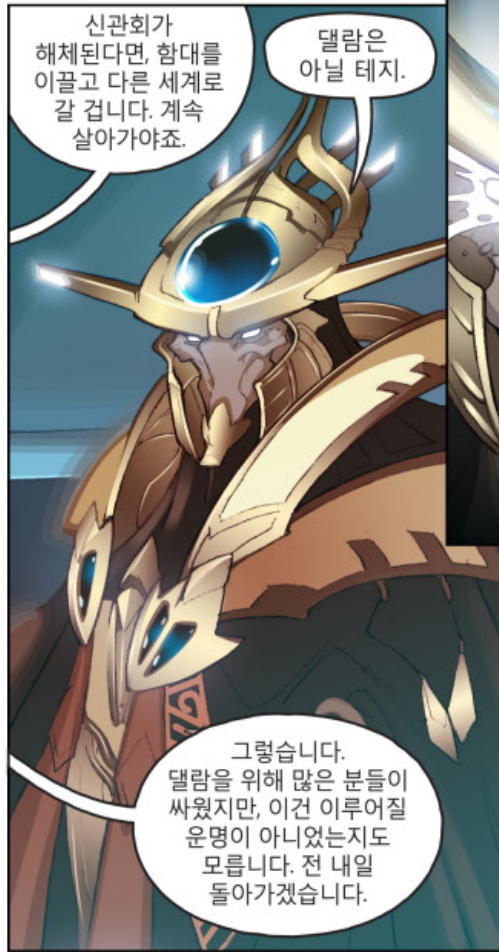
아니, 해야만 한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집행관님. 신관회 구성원들이 샤쿠라스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지도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이 역할을 맡으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할지 알고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고요.

집행관 셀렌디스.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껏 싸워온 것을 모두 잃게 될까 두렵군.



신관회가 해체된다면, 함대를 이끌고 다른 세계로 갈 겁니다. 계속 살아가야죠.

델람은 아닐 테지.

그렇습니다. 델람을 위해 많은 분들이 싸웠지만, 이건 이루어질 운명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전 내일 돌아가겠습니다.



거우 이렇게 다시 갈라지기 위해 하나가 되었던 걸까? 아니면 운명이 델람의 미래를 내 손에 맡긴 건가?



태사다르... 저 대신 그대가 여기에 있었더라면...



그대는 동족의 통합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보며 우린 모두 그대를 믿었습니다.

그대는 고대의 법규를 깨뜨릴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대를 구출해낼 용기를...



...그리고 저그와 그 지도자, 초월체를 향한 결사적인 공격을 감행할 용기를.

그대의 행동을 보며, 변화를 위해선 신념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도.

집행관, 초월체가
약해졌다. 하지만 우리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
내가 간트리서를 조종해
초월체와 충돌하겠다.

선체에 암흑 기사
의 에너지를 충분히
집중시킬 수 있다면,
그 저주받은 괴물에게
빠른 죽음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야.

우릴 기억해 다오,
집행관이야. 오늘 우리가
한 일도. 아둔이 그대를
보살피시길.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쉽게
생명을 버리려
하십니까?

난 죽음을 바라진 않는다. 친구여.
한때 충성했던 대의회와 대적하길
원하지도 않고. 난 기사단의
집행자로서, 대의회의 뜻을 섬기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운명이 내게
이 길을 주었다.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든. 동족의 안녕을
위해 받아들여야 한다.



언젠가 그대도
이해하겠지. 모든
지도자가 그러하듯이.





단 하나의 이타적인 행동으로, 그대는 초월체를 무찌르고 우릴 영원히 바꿔 놓았습니다.

비록 저그의 잔당 때문에 우린 아이어를 떠나 샤쿠라스에 정착해야 했지만, 그대의 희생으로 우리는 또 하루 싸울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남은 오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희망도 얻었습니다.

새로운 운명을 그릴 수 있다는 믿음까지도.



허나 이렇게 시간이 흘렀건만, 그대의 마지막 말이 여전히 저를 괴롭히는군요.

그대의 희생에 대한 기억은 제 마음을 휘젓고...

그 마지막 가르침은 아직도 수수께끼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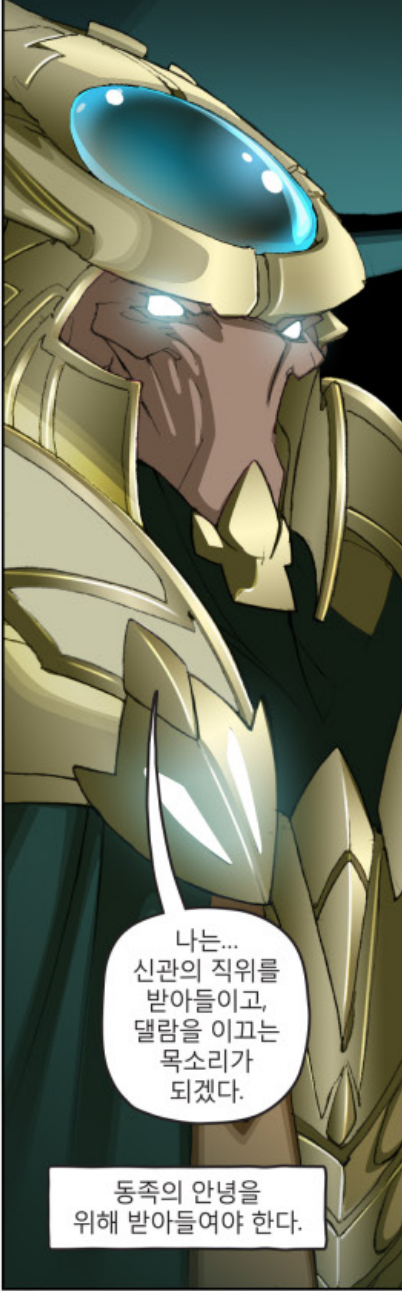
난 지도자가 아니다. 전사일 뿐이다.



침묵으로 항변하고 있군요. 답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전 함대를 이끌고 즉시 떠나겠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그뿐이다.

하지만 운명이
내게 이 길을 주었다.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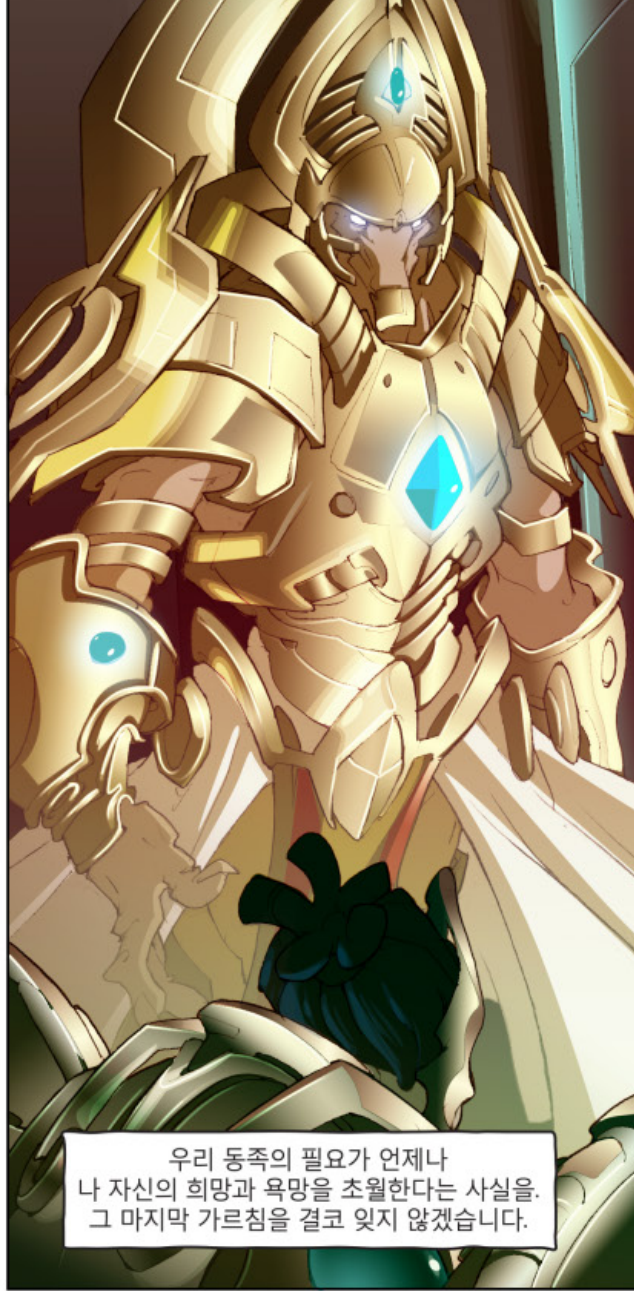


나는...
신관의 직위를
받아들이고,
델람을 이끄는
목소리가
되겠다.

동족의 안녕을
위해 받아들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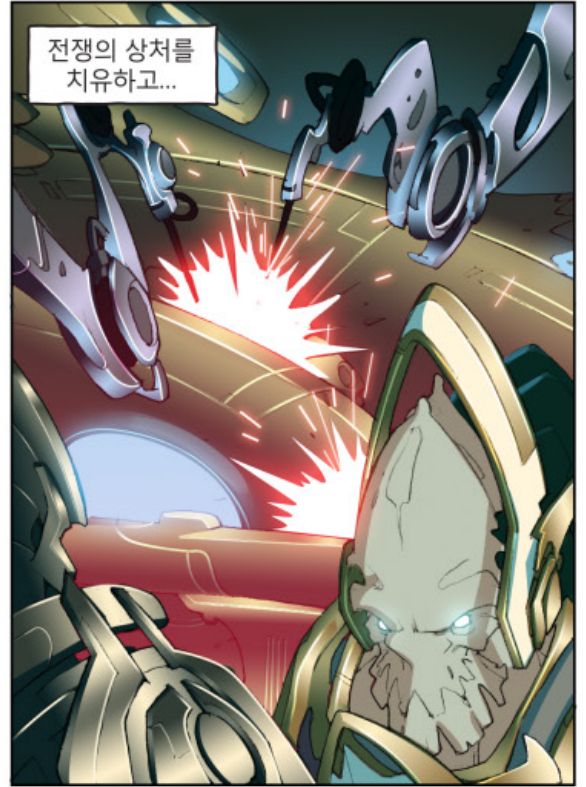
오랜 친구여, 언젠가 저도
그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했었지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 동족의 필요가 언제나
나 자신의 희망과 욕망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그 마지막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동족 사이의
골을 메우겠습니다.

수 년이 걸리든 수십 년이
걸리든, 프로토스의
영광을 되찾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저 우주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겠습니다!



엔 타로
태사다르!